

2026
No.127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 휠 베어링 ● 트랜스미션 베어링 ● Axle Roller 베어링 ● EV모터 베어링 ● 초경량 베어링
- 산업용 베어링 ● Truck&Trailer 베어링 ● Chassis & Suspension ● SWG & SI Module ● AMR 휠 구동 시스템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2_ 힐링 트레킹
- 06_ 고대인의 날
- 08_ 명예교수 사은회
- 10_ JOB多한 밤
- 11_ 상반기 골프대회
- 17_ 교우 기부 I
- 18_ 교우 동정
- 20_ 교우 기부 II
- 21_ 교우 기고
- 30_ 학년별 소식
- 52_ 경영대 소식
- 55_ 모교 소식
- 56_ 교우 신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6 통권 제127호 Vol.49

발행일 2026년 6월 29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경영대학 교우회

제 3 회
힐링트레킹

경영대 교우회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우들과 교우 가족 등 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교 캠퍼스 인근에서 제3회 힐링트레킹을 개최했다. 지난 2년간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부득이하게 박물관 관람으로 변경해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맑고 쾌청한 날씨 아래 트레킹 행사를 진행했다.

인촌기념관에서 기념 촬영후 출발해 북악산로를 따라 올라가 안암학사, 화정체육관 입구, 개운산 스포츠센터까지 지나 개운산 마로니에마당에서 종암동과 청량리동까지 보이는 전경을 보며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개운산 무장애숲길(데크길)을 통해 성북구의회를 거쳐 돌아왔다.

봄을 맞는 설렘과 기쁨으로 녹음이 가득하고 철쭉이 만개한 싱그러운 길 4km 정도를 1시간 30분 동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던 교우들은 재학시절 걸었던 모교 뒷길에 관한 추억과 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코스를 완주했다.



트레킹을 마치고 학교 인근에 있는 순대국밥집인 ‘오소리순대’로 이동해 동기들끼리, 친한 선후배끼리 삼삼오오 모여앉아 막걸리에 순대모듬을 즐겼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좋은 날씨 속에 여러분의 대학 시절 추억을 간직한 고려대 뒷산 개운산 프로젝트를 3년 만에 진행했다. 62학년부터 20학번까지 여러 세대의 선후배들이 모여 교류하는 오늘 모임이 뜻깊었다. 앞으로도 다른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교우들의 소감을 전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김효명(경영62) 교우는 “60년 만에 모교에 왔는데 학교가 이렇게 발전한 줄 모르고 집결지를 찾아 1시간을 헤맸다. 우리 대학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남덕우 72학번 동기회장은 “이번 트레킹 행사를 공지하자마자 순식간에 20명 정도가 왔다. 더 받으면 다른 교우의 참가 기회가 없을까봐 20명 정도로

제한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현(경영20) 교우는 “재작년에 졸업하고 교우의 밤 행사를 처음 참가했는데 학생때 느껴보지 못한 벽참을 느꼈다.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고학번 선배님들을 보니 경영대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선배님들 덕분에 사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성악을 배운다며 ‘음치도 연습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황성민(무역84) 교우는 ‘오솔레미오’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후 간단하게 경품 증정 순서를 가졌다. 최고령, 최연소 학번 교우와 가족과 함께 참가한 교우에게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이 찬조한 와인, 최다 참가한 72학번 동기회에게 스크림, 양우산 등을 전달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이동섭 교우회장이 마련한 성심당 만주세트를 증정하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 했다.









(왼쪽부터) 승명호 교우회장, 락영길 교우, 허광수 교우, 안성호 교우, 김동원 총장

개교 121주년 고려대 “대한민국 SI 교육 선도… 2030년 글로벌 Top 30 대학으로 도약하겠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SI 인재 육성을 선도하고, 글로벌 Top 30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 고려대 교우회(회장 승명호)와 함께 5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05년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한다’는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시작된 고려대의 121년 역사를 반추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미래 교육을 위한 학문과 예술 융합 협약’을 체결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브라스 콰텟과 고려대 동아리 관악부와 아카펠라팀 로그스 3개 연합팀의 사전 축하 공연으로 막을 올린 후 ▲법인 이사장 환영사 ▲총장 식사 ▲교우회장 축사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및 발전공로상 시상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호 이사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며 “고려대는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에 이어 지난해 학부과정까지 신설하며 세계적 수준의 SI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SI 최고급 신진

연구자 양성 사업(SI 스타펠로우십지원)에도 선정되는 등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121년 동안 고려대는 굴곡진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시대를 밝히며 나라를 이끌어왔다”라며 “현재 세계대학평가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지표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려대는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진정한 글로벌 배움터이자 세계 석학과 우수 대학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고대를 사랑하는 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3년여간 누적 기부금이 3,3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12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2030년 글로벌 TOP 30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우리 교우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교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며, 후배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변치 않는 책무라 믿는다”라며 “고려대가 더

멀리 도약하도록 38만 교우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시 교육 선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고려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총 240억 원 규모의 '시 중심대학' 사업 7개교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시 스타펠로우십지원' 사업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총 860억 원 규모의 시 국가사업을 유치했다.

김동원 총장은 "시 시대 인류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계와의 속도전이 아닌 '인간만의 지성'을 키워내는 데 있다"라며 "시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Next Intelligence University'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곧 신설될 '시 연구원'은 대학의 모든 연구 분야를 하나로 잇는 초거대 시 연구 공유 플랫폼이자 연구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허광수 삼양 인터내셔널 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발전공로상'은 김대영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허광수(상65) 교우는 삼양인터내셔널을 이끌며 기업 경영에 헌신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골프연맹과 대한골프협회의 수장으로서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곽영길(아주경제 회장, 영문74) 교우는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고대언론인교우회 회장으로서 미래 저널리즘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안성호(에이스침대 대표이사, 지질87) 교우는 에이스침대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에이스경암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고려대의 역사를 조명하는 '개교 120주년 기념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KU 시네마트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부 개교 120주년 역사 다큐멘터리, 2부 정기 고연전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으로 나눠 진행됐다. 재학생을 포함해 140여 명의 교우들이 보성전문대학교 개교부터 시작된 고려대의 발자취를 함께 감상했다. 특히 교우



교우연합창제



개교 120주년 다큐멘터리 상영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브라스 콰텟'의 축하 공연

들이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상영회를 찾아 대를 이은 '고려대 사랑'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76학번부터 95학번, 그리고 EMBA(경영진 대상 집중 MBA과정) 합창단원들이 참여하는 교우연합창제도 열렸으며 캠퍼스 투어, 박물관 상설전 도슨트 프로그램, 박물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www.korea.ac.kr



명예교수 사은회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5월 13일(수) 오후 12시에 LG-POSCO경영관 안영일 홀에서 경영대학 주최로 '명예교수 사은회 및 교수 만남의 날'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 청, 어윤대, 황규승, 윤영섭, 강호진, 이장로, 이진규, 문형규, 이만우, 이두희 명예교수와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 30여 명의 경영대 교수가 함께 했으며 최철원(무역88) 부회장도 참석해 명예교수들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일정이 맞지 않아 함께 자리하지 못했다.

지 청 명예교수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기여하신 현직 교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성장하여 위상을 크게 떨치기 바란다"라며 "전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한 현실 속에 교육구세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연수 경영대학장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왔던 학교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선배 교수님들 덕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학장은 5월 8일에 있었던 3C Trading Zone 오프닝 행사때 '데모데이' 순서에서 학생, 교수,





예술가들이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 관계자와 활발히 교류한 점을 언급하며 3C 4Tech 진행상황을 전했다. 또한 원로 교수들도 KUBS 120 March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어윤대 전 총장은 명예교수들과 현직 교수들을 위해 '앞으로 경영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조언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건배사로 '위하고'를 외쳤으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오찬이 시작됐다. 최철원 부회장 역시 건배사와 함께 회사를 경영하면서

생각해 왔던 경영대 미래를 위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대 교우회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명예교수께 한 분 한 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영대학은 명예교수와 함께 현대자동차 경영관으로 이동해 3C Trading Zone과 엄정순 작가의 '코끼리K' 미술작품에 대해 경영대 홍보대사 KUBE의 해설을 듣고 경영대 곳곳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 뒤 행사를 마쳤다.





JOB多한 밤 일곱번째 이야기

“특수법인 : 공익적, 공공적 기관에서의 금융인”
현직 교우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의 시간

5월 11일(금) 오후 6시 LG-POSCO경영관 SUPEX HALL에서 잡다한 밤 Series7 이 경영대학 교우회, 고려대학교 경제금융인회(KEFA), 경영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열렸다.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JOB多한 밤은 이번이 일곱 번째 순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경영대 교우들이 재학생 후배들에게 근무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번회는 공공기관, 특수법인에서의 업무와 금융 전문가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첫 번째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분석팀의 신현수(경영03) 선임조사역이 첫 강연자로 나섰다. 신 교우는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감독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조언했다.

두 번째로 차원(경영05) 한국교직원공제회 부동산, 인프라 투자부 차장이 공제회와 대체투자 분야에서의 금융 커리어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차 교우는 특수법인과 타 금융기관과 다른 점을 언급하고 교사와 교직원들의 기금을 운용해 교직원 복지에 활용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을 것을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NH농협은행 신탁부 수석전문위원인 이현승(경영99) 교우가 강연했다. 이현승 교우는 금융공기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군인공제회, 신영자산운용 등 오랜 기간 금융권에 종사하며 쌓아온 실무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하며 안정성을 중시하거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금융공기업이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Q&A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교우들은 해당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당부를 전했다.

잡다한 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우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정보 공유를 위해 학생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2026년도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2026 상반기 골프대회가 2026년 5월 30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몽베르CC 회원제 코스에서 경영대학 교우회 주최로 15개 조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작년 골프대회는 비 올듯한 불안정한 날씨 속에 열렸지만, 이날은 30°C 이하의 쾌청한 하늘 아래 성황리에 치러졌다.

64학번부터 14학번까지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을 비롯해 전 총교우회장인 구자열(경영72) 명예회장이 오랜만에 교우회 행사에 참여했고 이상현(경영82)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전 대전지검장이었던 이상호(법87) 변호사, 나현승(경영91) 경영대학 부학장, 허준홍(경영94) SYTS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가 특별 게스트로 참가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 중 법조인으로

활약 중인 교우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몽베르CC는 동화그룹 회장인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2023년 11월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대 교우회가 그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회원제 코스에서 퍼블릭 코스로 변경해 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몽베르CC는 클럽 하우스까지 전 구간 리노베이션을 마쳤으며 세련된 시설과 난이도를 높인 코스, 최상의 잔디 컨디션을 구축해 고품격 골프장으로 거듭났다.

이날 대회에서 72타 동률이며 이븐파를 친 이영권(경영93), 안성수(경영96) 교우가 공동 메달리스트를, 70점을 기록한 김상표(경영89) 교우가 신페리오 우승을, 74점을 기록한 김민정(경영95) 교우가 신페리오 여성부 우승을 차지했다.



골프대회 시상

메달리스트	이영권(93), 안성수(96)	72타
신페리오 1등	김상표(89)	70점
신페리오 여성부 1등	김민정(95)	74점
최다참가 학번	89학번(김상표, 김종택, 김평국, 서천호, 서희원, 송문섭, 안종욱, 이강훈, 이동섭, 이정환)	
개근상	강동식(64), 김종택(89), 오선근(90), 한경선(98), 양지혜(02)	
DoubleX 상	서희원(89), 김현수(93), 김민정(95), 이문희(95), 김연희(96), 정현승(98), 한경선(98), 이경은(01), 양지혜(02), 금현애(04), 황세진(07), 이남영(10)	
영타이거 상	99학번 이하 참가 교수 19명	
포토제닉 상	OUT1팀 : 구자열(72), 이동섭(89), 허준홍(94), 이상호(법87)	
GUEST 상	이상호(법87), 이용대	
가성비 상	금현애(04)	0 파 상
		이희수(00)









찬조해 주신 분들

구자열 고려대학교 교우회 명예회장(72)	LS네트웍스 200만원 상품권, 마스터스 모자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74)	몽베르CC 4인 라운딩권
이동섭 경영대학 교우회장(89)	이성당 만주세트 68개
강동식 부회장(64)	고대 참기름 들기름 세트 15개
황성민(84)	오미자청 20병
김영돈(86)	썬크림 80개
김평국 부회장(89)	와인 72병, 전인지 선수 싸인 모자 1개, 류현진 선수 싸인 야구배트 1개
서천호 부회장(89)	현금 30만원
이강훈 상임이사(89)	현금 50만원
이영진(89)	현금 50만원
송승민 부회장(89)	현금 50만원
나현승 경영대학 부회장(91)	장우산 5개, 와인 5개
김현수 부회장(93)	라브아 퍼퓸 실내 탈취제(화이트티&자스민) 70개
안병원 부회장(93)	와인 1병
이영권(93)	하인즈 케첩 70개, 마요네즈 72개, 머스터드 72개
장수재 감사(93)	현금 30만원
허준홍 부회장(94)	핑 드라이버 1개, 현금 50만원
이규원 부회장(95)	이도곰탕 10만원 상품권 5장
이경은(01)	네오디움 골프목걸이 남겨 각 1개



즐거운 라운딩을 마치고 모든 참가자들이 만찬장에 모였다. 안종욱(경영89) 교우가 2부 순서를 진행하며 대회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훌륭하게 리노베이션이 된 골프장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승명호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골프 행사가 갈수록 열기가 넘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즐거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자열 고려대학교 교우회 명예회장의 건배사 이후 교우회 임원 위촉식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교우들의 찬조가 있었고 행사에 처음 참여한 교우들도 찬조 열기에 화력을 보냈다. 경품 혜택에 누락된 교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시상했으며 승명호 교우회장이 현장에서 깜짝 찬조한 ‘몽베르CC 4인 라운딩권’을 신청한(경영91) 교우가 차지해 참가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마지막 순서로 교호제창 및 응원가와 교가를 부르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마무리 했다. 대회 후에도 단톡방에 교우들의 후기가 올라오는 등 대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안병원(경영93) 교우는 “오늘의 라운딩은 교우들의 호연지기를 펼치는 멋진 푸른산 여정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6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	행사명	장소
3월 24일(화)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4월 25일(토) 10:00	힐링트레킹	개운산
5월 13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LG POSCO 경영관 안영일홀
5월 30일(토) 11:00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10월 2일(금)~3일(토)	정기고연전	
10월 3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정
미정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정
10월 30일(금) 11:00	골프고연전	페렘CC
12월 3일(목) 18:30	제44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고려대학교 교우회, 박판제 교우와 장학기금 1억 원 약정 체결



(오른쪽부터)박판제 교우, 한윤상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6월 8일 오후 4시 교우회관 5층 회장실에서 (재)지봉장학회 이사장 박판제(상60, 경영대 교우회 자문위원) 교우와 장학기금 약정식을 갖고, 1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교우회 장학회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기금은 원금보전형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1991년 설립된 지봉장학회는 경남 합천 지역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약 830명의 장학생에게 총 5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매년 합천군 고등학생 2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연간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박 교우는 고령으로 인해 재단의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고, 남은 재산을 모교 후배들을 위해 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봉장학회의 잔여 재원이 교우회 장학회로 이관되며, 그중 1억 원이 이번 약정을 통해 공식적

인 장학기금으로 확정됐다.

박판제 교우는 16세에 상경해 명동에서 구두닦이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 덕수상고 야간부를 졸업한 뒤 모교 상과 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공인회계사 및 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무부 국고국장, 대통령 사정비서관(두 차례), 조달청 차장을 거쳐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제4대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현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총장을 맡아 교육계에서도 발자취를 남겼다.

이날 약정식에는 교우회를 대표해 한윤상(경영78) 수석부회장과 조영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박 교우의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다.

약정식 자리에서 박 교우는 교가를 부르며 변함없는 모교 사랑을 보여줬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허락되는 한, 앞으로도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성심껏 이어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671호 교우회보 기사 발췌

■ 교우동정



구자용(무역73)

2026년 3월 19일
구자용 교우가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최종구(무역76)

2026년 3월 26일
최종구 교우가
한진칼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임영진(경영79)

2026년 3월 23일
임영진 교우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추경호(경영79)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추경호 교우가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박수근(경영81)

2026년 3월 26일
박수근 교우가
유진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임수강(경영81)

2026년 4월 15일
임수강 교우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로
취임했다.



정상호(경영82)

2026년 3월 12일
정상호 교우가
롯데카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최준영(경영82)

2026년 5월 8일
최준영 교우가
현대자동차그룹
정책개발담당에 임명됐다.



임달식(무역83)

2026년 3월 31일
임달식 교우가
KT스포츠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배형근(경영84)

2026년 3월 13일
배형근 교우가
금융투자협회
회원이사에 선임됐다.



양승원(경영84)

2026년 3월 30일
양승원 교우가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박재형(경영87)

2026년 3월
박재형 교우가
세무법인 형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윤순(무역87)

2026년 5월 6일
정윤순 교우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호(경영89)

2026년 6월 5일
임기호 교우가
PwC컨설팅 대표로
선임됐다.



최재호(경영89)

2026년 3월 23일
최재호 교우가
하나카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최지영(경영89)

2026년 4월 16일
최지영 교우가
IMF 이사에
취임했다.



김희문(경영90)

2026년 3월 30일
김희문 교우가
한국금융증권 전무에
선임됐다.



황용식(경영92)

2026년 2월 1일
황용식 교우가 세종대
경영경제대학(원)장에
선임됐다.

**김영환(경영96)**

2026년 3월 26일
김영환 교수가
지노믹트리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김승찬(경영97)**

2026년 4월 11일
김승찬 교수가
KT필리핀 법인장에
부임했다.

**심준용(경영00)**

2026년 3월 26일
심준용 교수가
HDC현대EP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김태준(경영04)**

2026년 3월 19일
김태준 교수가
미월에스씨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 교수동정**김우찬**

모교 김우찬 교수가
금융소비자보호자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유용근**

모교 유용근 교수가
현대카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 2026년 임원위촉

부회장 87학번 김학범 이상호
90학번 허재명
95학번 고두환
98학번 김경태 신승현 정현승 한경선
99학번 남광민 엄수형
01학번 고한얼
04학번 장호영

상임이사 97학번 김훈경
07학번 황세진

■ 결혼을 축하합니다.

박진우(경영81) 2026년 7월 5일 딸 유림 양 결혼
윤종선(경영84) 2026년 7월 4일 딸 희재 양 결혼

안가람(경영14) 2026년 5월 9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성윤(상53) 2026년 5월 13일 본인 별세
부수남(상61) 2025년 9월 본인 별세
박병규(경영78) 2026년 4월 15일 모친상
노 철(경영79) 2026년 4월 24일 빙부상
진용주(경영79) 2026년 5월 21일 모친상

김평국(경영89) 2026년 5월 8일 빙부상
최창규(경영90) 2026년 5월 31일 형제상
신선화(경영95) 2026년 6월 16일 시부상
정현숙(경영97) 2026년 6월 24일 부친상

윤영석 전 대우그룹 총괄회장·윤희준 경동대 교수 부녀, 고려대에 1억 원 기부
 작고하신 부인인 **故 조승자(상61) 교우** 추모...문과대학 신관 인문관 건립에 보탬



(왼쪽부터)윤희준 경동대 교수, 윤영석 전 대우그룹 총괄회장, 김동원 총장



고(故) 조승자 교우

윤영석 전 대우그룹 총괄회장과 윤희준(서문91) 경동대학교 교수 부녀가 고려대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학교는 5월 21일 오전 본관 총장실에서 문과대학 신관 인문관 건립 기금 1억 원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윤 전 회장의 아내이자 윤 교수의 모친인 고(故) 조승자(상61) 교우를 기리는 마음이 담겨있다. 부녀는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조승자 교우를 추모하기 위해 문과대학 신관인 인문관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려대는 인문관 1층에 조승자 교우의 이름을 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전 회장은 “아내가 고려대에 대한 마음이 깊어 꾸준

히 기부를 많이 했다”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던 순간은 전부 사람, 역시 사람, 결국 사람이었다”라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 또한 “문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내년 초 완공되는 인문관 건립에 기여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국내에서 인문관을 새로 짓는 대학이 많지 않은데, 인문학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적 교육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올해 문과대학 80주년을 맞아 ‘문과대학 미래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인문관 건립과 후학 양성, 연구 혁신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26년 5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발췌



Vincent van Gogh, Still Life with Absinthe, 1887

자유

김진하
상66·시인

와인 한 잔 하며
창밖을 망연히 바라보며
경쾌한 음악에 귀 기울이고

생각나는대로 중얼거리며
공연히 왔다갔다 서성거리고
누구하나 참견하는 사람 없이

나쁜
삶의 권태를 즐긴다.

Monticello

몬티첼로

김종순 경영62

아직 2월이라 몬티첼로 가는 길에는 우거진 나무들과 풀들이 고운 화색 옷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다.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창밖의 목가적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남서쪽으로 두 시간 반 남짓 달려 버지니아 샬러츠빌에 위치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의 저택, 몬티첼로(작은 산)에 도착했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 20대 중반부터 대통령으로 은퇴하기 직전까지 40년에 걸쳐 손수 설계하고 건축한 이 몬티첼로는 제퍼슨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그의 정치철학을 상징하는 박물관이며 성전이다.

방문자 안내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넓은 과수원과 정원을 지나 산정으로 오르는 길에는 아직도 겨울이 한창 머물고 있었고 산등성이에는 먼저 도착한 여행객들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진 선 안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해설자를 따라 그룹별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들었다.

4개의 주랑이 떠받치고 있어 로마의 신전을 연상시키는 동편 현관을 통해 몬티첼로의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응접실인데 각종 지도, 그림, 초상화, 조각품이 벽면을 채우고 창문과 창문 사이의 기둥에는 네 개의 흉상(볼테르, 뒤르코, 해밀턴, 제퍼슨)이 보였다. 다른 벽면에 걸린 사슴, 영양, 엘크의 뿔과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여러 도구와 무기,

모피를 포함한 민속품들이 걸려있다. 나는 이 방에 왜 인디언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을까 하고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다.

이어서 한 때 7,000여 권의 책이 진열되었던 서재와 침실 그 외에 과학적 장치가 구현된 여러 방을 둘러보며 그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사고와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는데 진심이었던지 잘 알 수 있었다. 당시 북아메리카에서 제일가는 장서가였던 제퍼슨이 애덤스에게 “나는 책 없이는 살 수가 없소”라는 편지를 보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밖으로 나와 돌아보면 건물 입구 양편에 L자형 테라스를 설치하고 그 밑에 마구간, 부엌, 낙농실, 훈제실, 등 여러 부속시설과 노예 숙소를 두고 그것들이 본체 지하로 연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실용성을 겸비한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다. 건물 뒤 언덕 쪽에서는 대서양 쪽을 바라볼 수 있고, 산정의 높이가 867피트, 언덕 하나를 전부 활용했지만 건물의 크기가 아담하게 보일 정도로 작아 보였다. 건축은 실용성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장르다. 몬티첼로는 제퍼슨 자신의 사상과 철학, 건축학적 심미안이 그대로 잘 녹아져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인민의 선의를 믿고,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는 신념 아래 인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였다. 1800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 수도 워싱턴 DC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재선에도 성공했던 그는 1809년 4월에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미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오롯이 헌신하였다.

그가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의미를 준엄하게 일깨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인구가 정부를 조직한 것은 이 권리를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목적을 파괴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미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격동의 혁명기를 이끈 정치 주역으로서 봉건적인 장자 상속제의 폐지와 소수의견 존중, 시민의 자유 증진과 종교·언론·출판의 자유 확립을 위해 힘썼다.

원주민의 문물



미국 독립선언문

또한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자기의 사상체계를 특정한 정당, 정파에 몰입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의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조국에 대한 큰 공헌은 루이지애나 매입이다. 당시 미시시피강은 미국 남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동부의 주요 도시로 운반하는 중요한 운송로였고 뉴올리언스는 그 기항지였다. 뉴올리언스와 이 운송 통로는 당시 프랑스 점령지였던 루이지애나에 위치해 있었다. 제퍼슨은 안정적인 운송 루트 확보를 위해 미시시피강 운항권과 뉴올리언스 매입을 협의하도록 프랑스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제퍼슨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1803년 당시 아이티 전쟁으로 재정난을 겪던 프랑스 정부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된다. (1km² 당 \$7). 이를 통해 미국 영토는 2배로 늘어났으며 멕시코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미시시피강 루트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서부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



토마스 제퍼슨

태평양까지 이어지게 됐다. 제퍼슨은 루이지애나 매입 후 새 영토에 무엇이 있는지 북서부 탐험대를 보냈는데 이때 수집한 인디언 원주민 유물 중 일부가 몬티첼로 응접실에 진열돼 있었던 민속품 바로 그것들이다.

1809년 정계 은퇴 후 몬티첼로에 돌아온 그는 고향에 머물면서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고 학장에 취임하여, 특정 계급이 아닌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교육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퍼슨은 장인의 상당한 빚을 떠안은 데다 대통령 재직 중 많은 손님을 접대하고 책을 사서 모으는 등의 지출로 늘어난 빚에 고통받았다. 이로 인해 몬티첼로 재산을 경매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미국 각지에서 많은 구원의 성금이 들어와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1826년 7월 4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 몬티첼로는 미국 5센트 동전에 새겨져 있으며, 버지니아 대학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제퍼슨만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휘한 인물은 드물다. 정치와 법률 외교 이외에도 건축, 고고학, 고생물학, 문학 공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발휘했으며, 버지니아 의회 의원, 대륙회의 대표, 주지사, 프랑스 전권공사, 국무장관, 부통령,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대통령을 했던 것보다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한 철학자요, 교육자로서 기억되길 원했다. 자신이 스스로 남긴 묘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제퍼슨의 묘비문

*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자,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

워싱턴DC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미국 건국 역사의 중요한 배경지 중 한 곳인 몬티첼로를 방문해 볼 것을 적극 권한다. 오고 가는 길의 목가적 풍경도 불만하다.



러시모어 산 국립 기념지
왼쪽에서 두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부부의 날 소고(小考)



손 윤 기
상61, 직지(直指) 홍보대사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에서 가정의 달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어느 목사님은 칼럼에서 부부의 날을 ‘뽀의 날’이라고 했다. ‘부부’라는 글자를 나란히 붙여서 압축한 글자가 뽀(부+부=뽀)이다. 어쩌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기도 했다.

“하루를 더 살아도 당신보다 내가 더 살아야 해요”

이 말은 아내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내게 한 말이었다. 나는 아내의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마음을 넉넉히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집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친구 하나 갈아 끼지 않았고, 벽에 못 하나 박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만약 나를 두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면, 나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어느 날 아내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병원을 다녀왔다. 하혈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정밀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다. 아내는 평소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자주 피곤해했고, 큰 병은 없었지만, 감기몸살을 자주 앓았다. 검사를 받은 후 의사와 면담을 했다. 의사



앞에 앉아 있는 나는 떨고 있었다. 과연 무슨 병일까? 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기 비할 데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자궁경부암입니다.” 나는 너무나 뜻밖의 ‘암’이란 말에 놀랐다. 의사는 이어서 또 말했다. “4기 초입니다. 수술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조용히 일러 준다. “가능성은 50%입니다.”

급한 마음에 처음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상의를 한 후, 암 전문병원인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다시 검진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 유명하다고 소문 난 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리고 곧장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아내는 항암 주사를 맞고 방사선 치료가 계속되면서 식욕을 잃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안타까운 마음 말할 수 없었고 괴롭기까지 했다. 지속적으로 먹지를 못하니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했다.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많은 암환자들이 못먹고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내의 발병 후 나의 삶은 온전히 아내의 치료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병원을 오가며 항암 주사, 방사선 치료, 채혈, CT, MRI 촬영 등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것이 루틴이 됐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연말을 넘겼고 또



2020년을 훌쩍 넘어 2021년 가을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에 평소에 즐겨 먹었던 낙지집을 찾았다. 아내는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다. 아내는 건강할 때 먹던 것처럼 남김없이 단숨에 한 그릇을 먹어 치웠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식사를 잘할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와 희망과 함께 나는 참 행복해했었다.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다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 식사가 생의 마지막 식사일 줄이야... 지나고 보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맛있는 것 실컷 많이 먹으라는 하나님의 가호였고 배려였고 은총이었던가 싶었다.

맛있게 점심을 먹은 다음 날 컨디션이 안좋다며 거의 활동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어 상태가 좋지않아 자정을 넘어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 간호사들의 분주한 모습에서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왔다. 의사가 다녀간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한다고 했다. 그때 나는 각오를 했고 연명을 위하여 산소호흡기를 꽂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아내와 나는 오래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의사에게 확인했다. 산소호흡이 치료를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몰라도 연명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의사는 내게 말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꼭 써보고 싶은 약이 있는데 좀 비싸다"라고 했다.

그 상황이 되니 한 가닥 실오라기를 붙잡는 심정이 되어 그 비싸다는 약을 투여하게 되었다. 그 약을 투입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딸에게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하라는 것이다. 난 때가 왔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여기 오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영상으로 면회의 기회를 주겠다는 배려이다. 임종의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면회의 수순이 마지막으로 내게 왔다. 병실에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호흡이 있는듯 마는듯한 상태였다. 난 아내의 귀에 대고 "자녀들과 내 걱정 말고 평안히 좋은 곳, 주님 곁으로 가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다. 창조주께서 마지막까지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기관이 청력이라고 했기에 분명 내 마지막 작별의 음성을 들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는 아내의 볼에, 이마에 입을 맞추고 몸을 일으켜 돌아서니 옆에 있던 의사는 내게 말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2021년 10월 15일 05시 24분.

아내는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다. 발병 2년 만에, 병원에 온 지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루를 더 살아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라던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훌쩍 떠났다.

아내는 평소 수목장을 원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주말에 부담 없이 다녀올 만한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파리에 거주하면서 교제 나누었던 지인(정 화백)으로부터 양평에 있는 어느 수목장지를 소개받았다. 방문해 보니 그곳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서 가정사역자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셨다. 안내 말씀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결정했다.

2021년 10월 22일(금), 수목장지 앞에는 시원하게 펼쳐진 산이 있고 멀리 예배당의 십자가가 보이는 동산에 안치했다. 정성스럽게 유골을 안장하는 목사님의 엄숙하고도 거룩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아내의 안식처로 더할 나위 없는 곳이란 안도감을 갖게 했고 마음이 평안했다. 이렇게 해서 아내의 천국 환송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아내의 표지석엔 ‘이제 나는 여호와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시편 23:6)라고 썼다.

그 후 나는 아내가 잠들어 있는 수목장지를 자주 찾았다. 주일이 오면 어느새 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것이다. 그 동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묻힐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은 새로운 나의 마음의 고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난 머릿속으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와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을 늘 되뇌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는 한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하지 않았던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운명이거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고 자신을 달래곤 한다.

부부의 날을 맞아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이제 5개월 후면 어느덧 아내의 5주기가 돌아온다. 지난 삶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아내와의 추억 속에 되살아난다. 자주 갔던 카페, 제과점, 편의점, 식당(그렇게도 맛있게 먹었던 낙지집, 시장 골목 안 칼국수 집,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갈치조림집 등등), 슈퍼, 약국, 세탁소,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며 걸터앉아 쉬던 허름한 의자 등등...

아내는 치료 과정에 입맛을 잃어 뭐가 먹고 싶어 여러 음식점을 전전했었다. 그러나 음식을 주문해 놓고 첫술부터 거의 못 먹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 그럴 때마다 음식이 아깝다며 식성 좋은 나는 조금씩 더 먹은 것이 마침내 내 배만 나오게 했고 허리둘레만 늘어나게 되었지 뭐가!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는데 모든 바지의 허리가 맞지 않았다.

동반자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이토록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할 줄은 몰랐다. 오래전 일찍 상처를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부부가 나란히 걷는 것만 보아도 부럽더라. 손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은 더더욱 그렇더구나.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를 보아도 부럽더라’라고...

정말 그렇다. 내 심정이 꼭 그랬다. 내가 방에 있으면 아내가 거실에서 TV 보는 것 같고, 내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침실에서 잠자는 것 같았다. 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외출한 아내가 들어오는 것만 같아 그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을 때의 그 공허함,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정말 외로웠다. 참으로 쓸쓸했다. 너무나도 고독감을 느끼게 했다.

내가 존경하는 백수를 앞둔 믿음의 선배님께서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나를 “미재혼남”이라고 부르며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요즘 만나는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인의 안부를 묻고는 “있을 때 잘해! 후회 없도록!”이라며 권면하곤 한다.

‘K’라는 알파벳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 - 브랜드 코리아의 진화와 함의 -



이 경 순

상61,季刊 <글의 세계> 발행인/편집인

K 알파벳 하나에 담긴 국가의 무게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K’라는 글자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의 알파벳이 아니다. 팝 음악(K-Pop)에서 시작된 이 작은 접두사는 이제 드라마(K-Drama)와 음식(K-Food)을 넘어 방위산업(K-Defense), 조선(K-Shipbuilding), 심지어는 행정 시스템(K-Quarantine, K-Customs)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Korea의 K’라고 인식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과연 이 ‘K’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만의 국뽕 자화자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K’는 단순한 약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 가장 성공적인 국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확립됐다. 이제 ‘K’는 특정 국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리적 기호를 넘어, 전 세계 소비자와 정부가 신뢰하는 하나의 품질 표준이자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으로 자리 잡았다.

언어적 공인과 문화적 패권의 획득

어떤 용어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 있는 잣대는 언어학적 등재 여부다. 2021년,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은 한국 관련 단어 26개를 한꺼번에 등재하며 전 세계 언어학계를 놀라게 했다. 이때 OED는 ‘K’를 한국과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는 결합형 접두사로 공식 정의했다. 이는 ‘K’가 더 이상 한국인들끼리 부르는 애칭이 아니라,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1990년대 일본의 J-Pop이 누렸던 위상을 훨씬 상회 하며, 이제 ‘K’는 한국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독점적 기호가 되었다. 이제 해외 언론 기사에서 ‘K-Style’이나 ‘K-Way’라는 표현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한국적인 혁신과 세련미를 뜻하는 대명사로 사용된다.

경제적 신뢰와 기술적 표준으로서의 ‘K-방산·조선’

문화 영역에서의 성공은 이제 산업과 기술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K-방산’은 ‘K’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실질적인 국가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넥스원 등)의 합산 매출은 4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주 잔고다. 현재 약 12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 대기 중인데, 이는 전 세계가 한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공인했음을 뜻한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확정 지은 사례나, 중동의 천궁-II 수출, 나아가 페루 등 남미 시장 진출은 ‘K-방산’이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음을 증명한다.

‘K-조선’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전 세계 선주들에게 ‘K-Ship’은 곧 최첨단 기술력의 집약체로 통하며, 이는 국제 표준화

세계가 주목하는 KOREA INDUSTRY



기구(ISO)의 코드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상이 된 문화, 'K-푸드'의 글로벌 식탁 점령

'K'의 마법은 먹거리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2025년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돌파하며 'K-푸드'의 전성시대를 알렸다. 이제 'K-푸드'는 한때의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단적으로 라면 품목 하나만으로 수출 15억 달러(1971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기록은 경이롭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품들은 이제 글로벌 매운맛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미국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품질 대란을 일으킨 냉동 김밥 사례는 'K-푸드'가 건강(Healthy)과 간편함(Convenient)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것은, 'K'라는 이니셜이 붙은 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무언의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왜 전 세계는 'K'에 열광하는가?

'K'이니셜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원동력은 단순히 한국산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동성(Dynamic)과 융합(Fusion)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 방식에 있다. 한국의 'K-컬처'와 산업은 서구의 문법을 빠르게 학습하되, 그 안에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와 완벽주의를 녹여내어 완전히 새로운 프리미엄을 창출했다.

과거의 'Made in Korea'가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 좋은 제품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의 'K'는 "가장 앞서가는 트렌드이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의미한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의 제품을 구매하며 그 이면에 흐르는 한국의 현대적인 이미지와 국가적 신뢰도를 함께 소비하는 것이다.

'K'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결국 'K'이니셜은 국제기구의 도장이 찍힌 서류상의 공인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와 시장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실질적 공인'의 결과물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쌓아온 경제 성장의 결실과 문화적 역량이 응집되어 나타난 거대한 에너지의 분출이다.

하지만 'K'라는 접두사가 영원한 보증수표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K'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K'만의 독창적인 가치와 고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K'는 이제 단순한 Korea의 약자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전진(Keep moving), 따뜻한 공감(Kindness), 그리고 지적인 혁신(Knowledge)을 아우르는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문법이다. 우리는 이 '3K'라는 열쇠를 통해 전 세계와 더욱 깊이 소통하며,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품격 있는 국가 브랜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6 회장 이종순 / 직전회장 이연상

막수회 ●●●

지난 3월 이후 5월 말까지 경영56 막수회는 전과 비슷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에 6명, 4월에 9명, 5월에 6명이 참여해 월 평균 7명 참여로 평년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의 회원 동정 중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우리 모임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1934년생 김행엽 동기가 고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모임에 여러모로 귀감이 되어오던 중 대상포진이 발병되어 지난 2월과 3월 연속 두 달 참석 못하다가 다행히 회복되 4월 이후에는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해까지 거의 개근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던 오태환 동기가 신장에 이상이 생겨 지난 12월 정기총회부터 계속 참석 못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완쾌되어 참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3. 지난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어 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종순 동기가 그동안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잘 받아왔는데 지난 5월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동맥 스텐트삽입 수술받고 어려운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기고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 3명의 동기 외에도 여러 동기들이 투병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 모임에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지난 5월 모임에선 재학시절 징집되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서 고생하던 대화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담소했는데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우리 동기들 되도록 모임에 참여해서 즐거운 대화의 장과 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



막수회

61 총무 이채영

2026 상반기 모임 ●●●

동기회 상반기 전체 모임이 예년과 같이 5월 16일 금요일 12시 7호 선 논현역 앞 '취영루'에서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채영 총무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 모두가 병오년을 건강하게 보낼 것을 다짐하는 건배를 시작으로 준비한 음식을 들며 5개월 만에 만나 그간의 지내온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특히 모두가 생리학적으로 장벽에 부딪힌다는 85세를 맞음에 따라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서 90개를 꼭 넘자고 다짐했다. 회식이 끝난 후 12월 송년회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근 카페로 이동해 못다 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상반기 전체모임

초암회(서초동 모임) ●●●

연초에 연회비를 내고 회장은 순서에 따라 2026년 최창규 회장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그간 흡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던 것을 2026년부터 3개월에 한 번 만나기로 하고, 모임 장소는 양재역 근처 골목에 있는 '왕삼돈'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순구 회장은 초등학교 동문 200여 명과 5월 15일 3박 4일간 선편으로 중국 칭다오를 다녀오기도 했다. 회장 외 김성희, 김순구, 김승헌, 강승열, 성규진, 이복성, 정기성, 조일규, 채규학, 정의철 등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7월 21일에 갖는다.



김순구 회원의 칭다오 여행

광암회(강남 모임) ●●●

강북과 강남에 직장을 둔 회원들이 흡수달 둘째 화요일 만나서 30명이 넘는 최대규모 모임이었으나, 현재 이채영 회장 외에 15명 전후의 회원이 사당역 앞 '참배나무골오리집'에서 오찬 만남을 갖고 있다. 병오년 첫 모임을 3월 10일에, 다음 모임은 7월 14일에 갖기로 했다. 한편 5월 모임이 상반기 전체 모임으로 대체됐고 이채영 회장은 덕수고 출신 고대 모임인 덕우회 회원들과 베트남의 하노이, 하롱베이 그리고 님빈 등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여행했다.



이채영 광암회장과 덕우회 회원들의 베트남 여행

이월회(양재동 모임) ●●●

짝수달 둘째 월요일 12시 30분에 양재역 인근의 '양재정육식당' 혹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번개 모임을 갖는 등 오찬 모임을 갖고 있다. 해외 근무 자녀들과 만나기 위해 김지균, 김우찬 회원 등 해외 체류가 많아져 참석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성영일 회장을 중심으로 12명 전후의 회원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도암회는 김 실 회장의 열정적인 회원 관리로 1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1시에 63빌딩 옆 라이프빌딩 2층 '호반'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모범 소모임이다. 회원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서예가 손윤기 회원이 2025년 5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일본 다시로 목사와의 인연으로 지난 4월 22일~25일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선교차 다녀왔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앞에서 손윤기 회원



사목회(걷기 모임) ●●●

매월 목요일 만나 산이 좋아 서울 근교 산을 오르던 회원들이 80세가 넘자 걷기로 목표를 바꾸어 둘레길을 함께 걷고 있다. 4월 23일에는 충무로역에서 씨티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 최근 서울시가 조성한 '남산하늘길'을 걸은 후 남대문시장 '남매집'에서 이병우 회원이 쏜 막걸리를 반주삼아 생선회와 탕으로 미식을 즐겼다. 5월 28일에는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을 오른 후,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방문했다.



남산하늘길에서

청춘대학(브라보 실버모임) ●●●

동기들 중에서 여행과 자연을 좋아하여 사찰 순례, 등산, 국내외 여행을 하는 등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매월 만나 미식을 즐기고 공연도 함께하며 노후생활을 풍부하게 보내고 있다. 특히 5월 6일에는 서예를 배우고 있는 박진자 회원이 하모니카 연주에 도전하여 '은빛소리 하모니카 연주회'의 일원으로 참가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스퀘어에서 연주하는 기쁨을 토했다. 5월 29일에는 이채영 회원 아들이 운영하는 녹사평역 앞 '카페테자르'의 창업을 축하하고 이태리 음식에 와인으로 모처럼 서양식으로 오찬을 즐겼다. 현재 회원은 최민자 회장 외에 김순구, 김정자, 박인우, 박준성, 박진자, 오영희, 이원태, 이채영 등이다. 금년 10월에는 일본 큐슈의 나가사키 등을 여행하기로 했다.



박진자 회원의 '은빛소리 하모니카 연주회'의 공연

62 회장 김광한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학번동기회 봄잔치 ●●●

경영대학 62학번 동기들은 고려대를 입학한지 60여 년이 지났고 회원 모두 80대 중반에 이르렀다. 말수회, 요산회, 기우회 등 소모임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서로 환담을 나누며 꾸준히 잘 지내고 있다. 2026년 5월에는 봄잔치를 열어 회원과 회원 가족 30여 명이 모여 '청계산옛골 풍천가'라는 곳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는데, 특히 김익철 회장이 케이크 다섯 상자를 찬조하여 식당 종업원에게도 나눠주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모임 중 말수회(사진)는 김한중 62학번 회장이 술선수범하여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말수회 모임

요산회 모임 ●●●

특히 동기모임 중 하나인 요산회(등산모임)는 그간 내로라하는 곳은 곳곳마다 찾아 즐겼으며 이제 나이가 들어 등산은 가지 못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만나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 여행중 유람선을 타고 삼시도에 들어가 산책하고 한우를 석식에 구워 술 한 잔 기울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요산회 모임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4월 백수회 남산 둘레길 모임 (백수회장 : 지동직, 토요일등산대장 : 이용규) ●●●

-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 코스 : 남산 무장애 둘레길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유명식,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8명)

아파트 정원에도, 가로수길에도 하얗게 피어있는 벚꽃이 남산 무장애 둘레길에도 보였다. 모처럼 찾은 남산에는 벚꽃의 흰 꽃잎이 나비처럼 날아 바닥에 눈처럼 떨어져 있고 고목 벚나무 등걸에도 꽃이 피어서 뒷산처럼 포근했다. 아직도 둘레길 데크 공사가 진행 중

이어서 끝나는 지점의 쉼터 의자에 앉았다. 일본 벚꽃 이야기와 해박한 지식의 박사들 이야기는 중단하지 않았다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었을 것이다. 굴 국밥집에서 식사 후 나중에 참석한 지동직 회장의 봉어빵 나눔을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남산 둘레길 모임

5월 백수회 양재 시민의 숲 모임 (1) ●●●

- 일시 : 2026년 5월 2일(토)
- 코스 : 양재 시민의 숲
- 참가자 : 김광수, 박채길,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석훈, 이용규, 홍현묵(9명)

이제는 여름 복장을 하고 평지처럼 조성된 숲속과 잘 가꾸어진 꽃밭 사이를 돌고, 청아한 새소리까지 들으며 서울 근교에서 주말을 멋진 동기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간단한 차와 커피 한잔, 막걸리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점심으로 한우 우거지탕에 탁주가 곁들여지면 각종 영양식 소개가 끊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참석한 송병열이 점심을 사고 이용규 토요일등산대장이 막대 바게트로 봉어빵을 대신해 나누면서 모임을 마쳤다.



양재 시민의 숲에서



5월 백수회 안산 돌레길 모임 ●●●

- 일시 : 2026년 5월 9일(토)
- 코스 : 안산 돌레길
- 참가자 :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박채길, 안덕수,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8명)

5월 초 안산은 아카시아꽃이 만발해 있었다. 몇 해 전까지 시골 초등학교 동창이 벌통 120통을 싣고 매년 봄 안산 봉은사 아래에 터를 잡고 아카시아꿀을 채취할 때면 서울과 인근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 예닐곱이 모여 꿀을 안주로 소주, 막걸리를 마시며 연례행사를 했고, 꿀을 팔다가 남으면 농협에 납품하던 동창이 생각이 난다. 무장애 데크길이 생긴 후 안산은 근처에서 가장 봄비는 나들이 장소로, 항상 주말에는 봄비고 식당에서도 오랜 기다린 끝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산에 올랐다. 하얀 초롱 등불 모양 꽃이 무더기로 피어 매달린 꽃길에서 간단한 다과와 탁주 한잔을 걸치고 내려와 굴국밥 대신 갈비탕, 낙지비빔밥에 막걸리 한 두잔 하는데 이런 좋은 곳에 박명익은 집을 나서다 컨디션이 나빠 포기하고 함께 나섰던 이경희 산행대장은 어지럽다고 산행을 중단했다. 우리는 오늘도 안덕수 회장의 배려로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안산 돌레길에서

5월 백수회 양재 시민의 숲 모임 (2) (수요대장 : 유명식) ●●●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 코스 : 양재 시민의 숲
- 참가자 : 김광수,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9명)

때이닝 장마처럼 잦은 비 소식에 오늘도 산행 모임이 취소되나 했는데 수요대장 유명식의 강행으로 양재역에서 모여 양재 시민의 숲으로 걸었다. 지난 토요일 이용규 토요일 산행 대장의 소집 통보에 한 사람도 호응이 없어서 자동 취소됐고 주 1회 산행으로 축소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기 대부분이 주 1회 수요일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몸이 아프고 건강도 나빠져서 결석자가 늘어나니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양재 시민의 숲에서 다과와 차, 막걸리 한잔, 식사는 청계산입구역 한우 우거지집에서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다음을 약속하면서 해산했다.



양재 시민의 숲에서

5월 등산회 동구릉 테마모임 (등산회장 : 홍현묵,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 코스 : 구리시 동구릉
- 참가자 : 고병선,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덕명, 김동훈, 김상규, 박재진,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정원교, 조재복, 조종래, 황석희, 홍현묵(21명)

오랜만에 우면산을 벗어나 동구릉에서 11시에 느즈막히 모여서 잘



동구릉에서

가꿔진 숲길을 따라 걷고 나누는 대화는 오래 숙성된 음식처럼 깊이 있고 정이 있었다. 그동안 투병 중 한참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조중래 동기는 문화재 해설가 준비라도 한 것처럼 사회 뿐만 아니라 헌릉 등 역사 해설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고 모처럼 참석한 황석희 행장의 인사말과 '내 어머니 이을순' 출판기념회를 6월 10일에 가질 예정인 정원교 전 사무총장의 출판에 대한 변, 64경영동기회장 박재진의 향후 등산회 참석에 대한 약속, 홍현묵 회장의 인사말, 고병선 등산대장의 사회뿐만 아니라 다방 커피 배달서비스는 몸보신용 흑염소탕 대접 전 적당한 운동에 이은 영양 보충이었다. 스물한 명 장년들의 하루에 멋진 선물이 됐다.

6월 백수회 현충원 참배 ●●●

- 일시 : 2026년 6월 3일(수)
- 코스 : 동작동 현충원 일원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최종욱(9명)

동작역 8번 출구에서 현충원으로 들어가 구내휴게소에서 11시 만나 그늘 길을 따라 현충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계속 내리는 비가 장맛비 같아서 취소될까 우려했으나 유명식 수요대장은 강행했다. 현충일이 며칠 남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 참배하러 방문한 탓인지 경내는 붐볐다. 오랜만에 참석한 박명익을 비롯해서 동기 8명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일찍 끝내고 나와 모처럼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하고 벤치에서 작금의 난국에 대해 의견 교환 후 점심은 전철 타고 이수역 시장 내 생태탕에 막걸리를 함께 먹고 '호국 기념모임'을 마쳤다.



현충원에서

64학번 입학 동기회 모임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코스 : 과천대공원
- 참가자 : 고병선, 권영기,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석훈, 정원교(11명)

'이화열시반' 모임은 둘째 화요일(이화) 10:30(열시 반)을 줄임말로, 64학번 입학 동기들이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만나 송대용 회장의 구령에 맞춰 맨손체조로 시작한다. 대공원을 돌다가 쉼터에서 막걸리 한 모금에 커피, 과자를 곁들여 먹고 특히 매번 송대용 회장이 순두부와 김치찜 맛춤을 테이블마다 돌린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공원 관리소에서 차량을 몰고 와 술은 안된다고 처음으로 단속 있었는데 선경종합상사 비서실장 출신 정원교 동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깨끗이 청소할테니 걱정말고 가라"라며 설득해서 돌려보냈다. 이날 막걸리가 부족했던 것은 날씨가 제법 더워졌고 참가자들이 경영대 11명, 정경대 8명, 농경과 6명 등과 처음 참가한 생물과 백낙순 동기까지 43명의 인원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은 선바위역 밥집인 한식 뷔페에서 소주와 막걸리, 돼지북음 등 수많은 반찬과 박카스, 비타민C, 무제한 커피 등의 후식으로 저녁을 거를 정도로 배부리 먹고 오후 3시가 넘어 모임을 마쳤다.



과천대공원에서



66 회장 김용년 / 총무 정 발 / 감사 박민규

3월회 (회장: 최문봉) ●●●

- 날짜 : 5월 18일(월)
- 장소 : 솔라고 호텔 2층 아미고 뷔페식당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집에만 있기보다는 외출하기 좋은 시절, 총무 로역 7번 출구에 있는 아미고 뷔페식당에서 삼월회 모임에 참석해서 동기들과 밥 먹고 얘기도 나누고 차 한 잔을 권했다. 매년 참석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동기들을 믿으니까 많이들 참석하길 기대했다. 이날 참석 인원은 17명(이름 생략)이었다.



3월회

虎球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웅한) ●●●

- 날짜 : 6월 1일(월)
- 장소 : 양재당구장(양재역 5번, 8번 출구)

2026년 Champion series를 4월부터 시작해서 10명이(A조 : 5명, B조 : 5명) 겨룬다. 10월까지의 예선전을 치르며, 연말에는 우승, 준우승(or 1, 2, 3, 4등)을 가려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으며, 시합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태도를 수용하고 함께 참여하는 넉넉함을 보여주어 선수들이 나이 들어감을 실감했다. 6월 1일 참석자는 12명이며 신경조 회장을 비롯하여 김창호, 한중희, 이병익, 김웅한, 김 열, 조규용, 염수열, 이연상, 최문봉, 정 발, 이상익이 참석했다.



호구회

이수회 (회장 : 남효극) ●●●

- 날짜 : 5월 13일(수)
- 코스 : 서울숲 국제정원박람회

제121회 이수회는 서울숲의 국제정원박람회를 택했으며, '서울숲꾸미'에서 식사했다. 신경조 虎球회장이 중식비를 찬조했고, 그날 나오지 못한 동기들을 위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健脚까지 소원하고 기도했다. 구분호, 김명학, 김 열, 김웅한, 김장옥, 박삼령, 박용혁, 박주홍, 박창덕, 신경조, 염수열, 이철규, 정성수, 정순달, 최문봉, 남효극 16명이 이날 모임에 참석했다.



이수회

이금회 (회장 : 이철규) ●●●

- 날짜 : 5월 8일(금)
- 장소 : 전주옛날집(양재역 2번출구)

이금회에는 김용년, 김웅한, 김원울, 김장옥, 박민규, 박삼령, 박종훈, 박주홍, 오의수, 이연상, 이철규, 이판철, 조규용, 한중희 총 14명의 동기가 회원으로 있다. 그날 이연상, 이판철, 한중희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나머지 11명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健康하기를 기원했다.

사금회 (회장 : 최문봉) ●●●

· 날짜 : 5월 22일(금)

· 장소 : 인천 장봉도

오랜만에 서해로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 하러 장봉도를 방문했다. 우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영종도 운서역에서 만나 버스를 타고 삼목항 선착장으로 가서 45분 정도 배를 타고 장봉도에 도착, 순환버스를 타고 중점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근처 해수욕장과 전망대를 돌아본 뒤 다시 장봉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번 장봉도 둘레길을 트레킹하는 맛을 넉넉히 즐기면서 함께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날 참석자는 8명이며 염수열, 박용혁, 정순달, 이병익, 오현재, 최문봉, 김장욱, 김원율이다.



사금회

69 회장 조현용 / 총무 이영식

69석영회 번개팅 ●●●

2026년 4월 16일 지 청 교수님이 새로 이사 가신 종암동 노블레스 타워 요양병원 바로 옆 한일전에서 은사님 모시고 경영69동기회 올해 첫 번째 번개팅을 가졌다. 오경석 동기가 후원하고 동기회가 주최한 이 번개팅에 약 20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종암동의 명물인 한일전의 모듬전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70대 중반에 달한 우리들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덕담과 지혜를 나눴다. 동기회는 은사님께 꽃다발과 여행비 보조금 상당액을 전달했고 참석자 전원에게 고대 야구모자를 증정했다.



석영회 2026 첫 모임

74 경영회장 우갑준 / 사무총장 조형용

베트남 나트랑, 달랏 여행 ●●●

· 기간 : 2026년 5월 26일(화)~5월 30일(토)

2024년 6월, 입학 50주년 기념으로 동기 42명이 일본 홋카이도 여행 이후에 반응이 좋아 2026년 3월에 우갑준 동기회장, 조철래 전임 동기회장, 조형용 사무총장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에 동기들과 베트남 나트랑, 달랏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과 동기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2025년 9월 별세한 구자형 사무총장 후임으로 조형용 사무총장이 준비하고 진행한 것으로 해외여행을 다시 추진해달라는 동기들의 여론이 많아 다시 기획 중이다.



베트남 달랏 랑비안산에서



6월 남산모임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날짜 : 2026년 6월 6일(토)

베트남 여행후 첫 남산모임을 가졌다. 현 한호석 회장, 조형용 사무총장, 우갑준 74경영회장, 이준학, 조철래, 조군환, 강기철, 진영삼, 정영, 이문세, 최동필, 김양권 동기가 토요일 9시 30분 총무로 한국의 집에서 만나 남산 돌레길을 걸었다. 평래옥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후, 당구파는 당구치고 나머지는 옛날 서울극장에서 영화 관람하고 동대문 닭한마리로 저녁식사까지 하며 하루 종일 함께했다.



6월 남산모임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광릉 숲길에서 피어난 우정의 하루 (산우회장 : 손봉원, 글 : 윤상근) ●●●

4월 16일 화창한 봄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우리 경영76산우회(회장 손봉원) 동기들 14명(금창국, 김상태, 류만우, 박창호, 손봉원, 안재홍, 양성수, 윤상근, 이상식, 이종욱, 장영훈, 정희식, 조구휘, 한호림)이 함께 모여 자연과 역사, 그리고 우정이 어우러진 하루의 여정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광릉수목원-광릉-봉선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광릉수목원에서

아침부터 공기는 어느새 초여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따뜻함을 넘어선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우리는 문득 봄이 어느덧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계절은 말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시간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숲으로 들어갔다. 광릉수목원에서 숲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길을 걸었다. 평소에는 그저 나무로만 보이던 숲이 이날은 생명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대한 교실처럼 느껴졌다. 나무의 잎과 열매의 특징, 암나무와 수나무의 구분, 그리고 근친수정을 피하며 종을 이어가는 자연의 지혜까지—숲은 조용하지만 깊은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곧게 하늘을 향해 자라는 서어나무, 세월의 시간을 품은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제주 왕벚나무의 탄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해설사에 따르면 제주 왕벚나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라, 한라산에서 울벚나무(모계)와 산벚나무(부계)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탄생한 자연잡종이라고 한다. 자연 스스로 만들어 낸 생명의 결과라는 사실이 더욱 신기하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숲길 한켠에서 동기들이 정성껏 준비해 온 간식들이 펼쳐졌다. 각자의 가방에서 나온 음식들이 작은 잔칫상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웃음과 추억이 함께 피어났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세월의 간격은 어느새 사라졌다.

점심 후 우리는 광릉으로 이동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 왕릉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광릉은 조선 제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 윤 씨의 능(사적 제197호)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다. 특히 이 능은 동원이강릉형식, 즉 하나의 능역 안에 두 능이 나란히 자리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세조의 왕릉은 왕릉 구성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석실 대신 회격(灰隔) 구조로 능을 조성하여 간소화한 첫 사례라는 설명도 들었다. 왕릉 하나에도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왕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광릉을 뒤로하고 우리는 2.2km의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봉선사로 향했다. 숲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은 어느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작은 수행처럼 느껴졌다. 봉선사는 969년 고려 광종 20년, 법인국사 탄문이 창건하여 처음에는 운악사라고 불렸다. 이후 1469년 조선 예종 원년, 정희왕후 윤 씨가 세조를 추모하며 89칸 규모로 크게 중창하고 봉선사라 이름을 바꾸어 광릉의 능침사찰로 삼았다. 또한 1551년 명종 6년에는 문정왕후에 의해 교종의 중심 사찰로 지정되면서 조선 불교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봉선사에는 왕실 발원으로 제작된 대형 범종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이다. 조선 초기 범종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유물로, 왕실의 신앙과 예술적 수준을 함께 보여있는 역사적 유산이다.

사찰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수령 약 500년의 느티나무였다. 느티나무는 예로부터 '장수 나무'로 불리는 대표적인 나무로, 생명력이 강하고 수백 년에서 천 년 가까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가지가 넓게 퍼져 큰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마을 어귀나 사찰 입구, 정자나무로 많이 심어졌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한 자리를 지켜온 이 느티나무는 마치 역사의 증인처럼 장엄하게 서 있었다.

봉선사를 둘러본 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오남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정겨운 식탁 위에서 이어졌다. 병천순대집에서 돼지 머리고기와 순대를 곁들여 시골벽적으로 나누는 저녁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웃음으로 풀어주었다.

오늘 우리는 수목원, 왕릉, 사찰을 한 번에 둘러보는 깊이 있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즐겼다. 어느새 17,000보를 넘는 트레킹을 했지만,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충만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여정이 더욱 뜻깊었던 것은 손봉원 산우회 회장의 사전 답사와 세밀한 준비, 그리고 정성 어린 리딩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이동 동선과 해설, 휴식과 식사까지 모든 일정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동기를 서로의 배려와 화합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고, 그 하모니가 오늘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켰다. 자연 속에서 나누는 웃음과 담소는 세월을 넘어 다시 청춘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우정이 함께 어우러진 하루.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숲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우정의 길을 함께 걸은 하루였다.

2026년 상반기 특별 산행 기행문 '나카센도 옛길과 후지산 둘레길을 걸으며' ●●●

경영76산우회는 2026년 상반기 특별 산행으로 8명의 동기들과 함께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의 나카센도(中山道) 옛길과 후지산 둘레길을 걷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행은 단순한 해외 트레킹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동기들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

출발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날씨였다. 현지 일기예보에는 여행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모두가 우산과 우비를 챙기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산우회에는 소문난 '날씨 요정'이 있었던 덕분인지, 예보와는 달리 5일 내내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동 중에도, 트레킹을 하는 동안에도 비 한 방울 맞지 않았고, 덕분에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여행의 최고 공로자는 날씨 요정"이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화창한 하늘 아래에서 더욱 즐거운 산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후지산 앞에서

나카센도는 에도(현재의 도쿄)와 교토를 연결하던 다섯 개의 주요 가도 가운데 하나로, 과거 수많은 상인과 무사, 여행객들이 이용했던 역사적인 길이다. 오늘날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걷기 여행 코스로 사랑받고 있으며,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마을과 숲길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첫날 우리는 나고야에 도착한 후 비와고개 구간을 걸으며 여정을 시작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녹음과 맑은 공기 속에서 걷는 첫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돌길과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길가에 남아 있는 옛 이정표와 석조물들은 이 길의 오랜 역사를 말없이 들려주고 있었다.

둘째 날에는 오치아이주쿠에서 츠마고주쿠까지 이어지는 나카센도의 대표 구간을 걸었다. 숲길과 산길, 그리고 작은 마을을 지나 도착한 츠마고주쿠는 에도 시대의 모습을 잘 간직한 역참 마을이었다. 전통 목조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와 정갈하게 꾸며진 골목길은 마치 수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동기들은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담았다.

셋째 날에는 츠마고주쿠에서 나라이주쿠까지 걸었다. 나라이주쿠는 나카센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역참 마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길게 이어진 전통 가옥들과 고즈넉한 거리 풍경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루 평균 10km 정도의 거리를 걸으며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의 추억과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날에는 이번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후지산 둘레길을 걸었다. 모토스호 주변에서 시작된 트레킹은 아름다운 호수와 숲, 그리고 웅장한 후지산을 배경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구름에 가리지 않은 후지산의 장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일본의 상징이라 불리는 후지산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참가자 모두가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했다. 특히 잔잔한 호수에 비친 후지산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걷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길 자체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르막길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휴식 시간에는 간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서 산우회가 지닌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5일간의 여정은 짧았지만 매우 알차고 뜻깊었다. 무엇보다 출발 전 비 예보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여행 내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산행을 마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나카센도의 고즈넉한 옛길, 에도 시대의 정취를 간직한 역참 마을, 그리고 후지산의 웅장한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 산행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영76산우회가 건강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 걸었기에 더욱 즐거웠고, 함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비를 몰고 온다는 예보마저 물리친 우리 산우회의 '날씨 요정' 덕분에 더욱 완벽한 추억을 만들었던 산행이었다.

77 회장 김병채 / 총무 김인섭 / 회계 이종영

신임 회장단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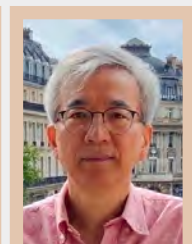
2026년 동기회 회장단이 출범했다. 김병채 동기가 77학번 동기회장을, 김인섭 동기가 총무를, 이종영 동기가 회계를 담당하게 됐다. 앞으로 동기회가 더욱 발전하고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병채 회장



김인섭 총무



이종영 회계

등산모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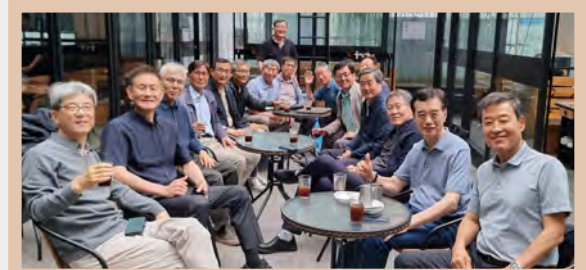
3월 21일(토) 봄의 전령사 진달래를 만나기 위해 서초구 청계산 진달래 능선을 방문했다. 이 모임은 매달 모이는 경영77 정기 산행 모임으로, 동기들의 건강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친목 모임이다. 등반 종료 후 하산하여 '만 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식사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주로 건강과 본인과 가족의 신상 변화, 다른 동기들의 동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3월 등산모임

강남 점심모임 ●●●

경영77동기회는 25년 전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강북 점심모임, 셋째 수요일에 강남 점심모임을 갖고 있는데, 5월 20일(수) 강남역 부근 '두껍삼'에서 16명의 동기들이 강남 점심모임을 가졌다. 이재홍 전 경영77동기회장이 최근 근황을 전했고, 아들 혼인을 마친 김문재 동기가 감사를 표했으며, 어머니를 여읜 장원재 동기가 동기들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했다.



5월 강남 점심모임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KUPGA79 시타 모임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 장소 : 일동레이크CC

지난 3월 17일 비록 중국발 산불 미세먼지에 기인한 희뿌연한 하늘이었으나 봄철 라운딩에는 더없이 좋은 봄날 일동레이크CC에서 20명의 벳들이 잔디 위를 거닐며 희노애락의 순간과 '라떼'를 기리는 시간을 함께했다. 긴 동계기간 중 움츠렸던 온몸에 활력과 웃음을 가득 채운 하루였다. 올해 첫 골프 모임에서 저녁 만찬을 기꺼이 제공해 준 임영진 프로에게 감사드리며 게임 판돈을 쾌척해 준 김석호 프로, (허만길 프로) 그리고 바람잡이 서학석 프로와 옆에서 얼떨결에 기금을 채워 준 서동린 프로에게도 감사드리다. 운영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서 보다 부담 적게 즐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시타 모임

이제 건강한 신체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니 좋은 순간을 놓치면 굉장히 아쉽다. 그 순간은 단 한 번 뿐이므로, 가능한 많은 동기들이 격의 없이 골프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나면 오늘이 '라떼'가 된다. 아울러 5월 17일(일) 상반기 춘계대회는 경영79 동기들에게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는 open형식이다. KUPGA 79회원이 아닌 분도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이날은 북일동 남화산의 진수를 느끼는 일동에서 라운딩과 특히 19홀에서 참여자를 위한 천당 바로 밑 999당에서 눈과 입을 즐기고 우정을 다지는 기회를 신동익 동기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많이 참가해 주기 바란다. 5월 17일(일) 춘계대회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UCC 3월 모임 ●●●

-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 장소 : 겸재정선미술관, 서울식물원

겸재정선미술관에 모여 겸재선생의 진경산수화가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을 관람했다. 겸재(謙齋)는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로서, 중인 이자 도화서 출신인 단원이나 혜원의 그림과는 달리 스스로 체득한 화법을 여행을 통해 직접 산수화를 그림으로써 불후의 명작을 남겨 국보로 지정된 작품이 두 개라 한다. 도슨트의 설명으로는 서울, 경기, 충청, 금강산 지역을 현감으로 있을때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화폭에 옮겨 불멸의 걸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한다. 겸재미술관은 기념실과 원화전시실, 진경문화체험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어 84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그림을 그렸기에 이를 통해 그의 생애를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식물원 열대관에서

다음으로는 서울식물원(Seoul Botanic Park)의 온실 정원을 통해 열대식물과 지중해식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실정원은 돔형 구조가 아닌 오목접시 모양의 온실로 높이 25m로 약 2,300평의 구조물에 3,0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열대관에는 극락조화, 인도보리수, 햇불생강, 브라질구아바, 망고, 파파야, 아마존빅토리아수련, 대나무야자 등의 식물이 전시돼 있다. 특히 빅토리아수련은 연잎의 크기가 2m에 달하여 어린아이가 앉아도 가라앉지 않아 이 원리를 이용해 건축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중해관에는 바오밥나무, 덕구리란, 카나리아야자, 피닉스야자, 선인장 등의 다육식물이 있어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분을 저장하고 자라야 하는 식물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약 두 시간 반의 관람 시간이 끝난 후에는 안희준 지인이 운영하는 마곡역 근처의 초밥집 We&Sushi 마곡 본점에서 맛난 생선회와 초밥, 와인, 맥거리, 맥주, 소주 등으로 고된 배와 목마름을 달래는 시간을 보냈다.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수신기를 준비해 식물원에서 설명하느라 애쓴 진용주 KUCC회장과 뒤풀이 장소를 섭외하고 후원해 준 안희준 동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KUCC 번개모임 ●●●

-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 장소 : 논현동 소재 갤러리VIV

경희대 교수직을 정년퇴직하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송상호 동기의 전시회에 시간되는 동기들이 모였다. 틈틈이 여행하면서 생각나는대로 화폭에 그림을 그리기에는 준비물이 많기에 태블릿을 캔버스로 삼아 디지털로 그림을 그린 지가 수년. 이제는 디지털아트라는 새로운 실험과 더불어 시 모션픽처를 도입하여 그림의 역동성과 움직임은 함께 구사하여 작가가 담고자 하는 정열과 의지를 담아내고 있었다. 송 작가의 색채가 다분히 몽환적인데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꽃의 속삭임, 인간사의 발전에 무한 기여한 말(馬)의 역동적 움직임들이 화폭과 스크린에서 눈길을 자꾸 끌어당겼다. 오늘 모임을 주관한 KUCC 진용주 회장은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여 좌중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었다.



송상호 작가 전시회에서

〈축사 전문〉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시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간과 도전, 그리고 경계를 넘는 용기를 보러 왔습니다. 얼마 전, 예술가 백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서로 넘나든다” 그 말처럼, 오늘의 작가 송상호는 학자의 길과 예술가의 길, 그리고 나이라는 경계까지 넘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각가였습니다. 손으로 형태를 만들던 예술의 DNA가,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인가” 그러나 오늘 이 전시는 그 질문을 뒤집습니다. “이 나이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순간”이라고 송상호의 작품은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캔버스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친구여, 송상호, 당신의 도전은 작품보다 더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메시지를 들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즉, 나이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KUCC모임을 마치고 몇몇 동기들이 남아서 치맥을 나누며 격려와 존중, 감사와 배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경79산우회 고군산군도 트레킹 및 시산제 ●●●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아침 7시가 되니 남부터미널역 근처의 ‘한설원’이 북적였다. 27명의 회원들이 식당에 한꺼번에 몰아섰더니 즐고 있던 주방이 정신없이 바빠졌다. 한우국밥과 설렁탕을 시켜놓고 안부 인사와 식사를 번갈아 했다. 이윽고 출발할 푸른솔관광의 28인승 리무진은 서울을 빠져나와 휴게소에 한 번 들른 후 군산앞바다 세계 최대의 방조제(33.9km)가 있는 새만금 간척지를 가르는 길을 따라 고군산군도의 무녀도에 입도했다.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도착하여 천년나무에



천년나무 앞에서

서 기념샷을 남긴 후 대장도의 대장봉(142m)에 올랐다. 물안개가 피어있는 섬들은 마치 선녀가 놀다간 지형만큼이나 예쁜 수평선을 그리며 아름다운 서해 섬의 군상을 뇌리에 각인시키고 있었다. 대장봉 전망대에서 펼쳐놓은 시산제 젓상에는 사과, 배, 대추, 밤, 한라봉, 방울토마토, 유과, 복어가 올라오고 커다란 문어와 돼지 저금통이 가운데 자리했다. 장덕윤 산악회장이 술잔을 올리고 강신과 초헌, 이어서 축문을 읽고 삼배하며 산우회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서 이상현 총회장이 간단한 축사와 소망을 얘기한 후 헌작을 올렸다. 이어서 두세 명씩 어울려 헌작을 올리고 준비한 봉납을 돼지 저금통 앞에 쌓았다. 시산제가 끝난 후 음식을 나누고 막걸리를 음복하며 우리 산우회와 회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그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되새겼다. 하산하며 바라본 할매바위와 천년나무의 기도를 생각하며 장자도에서는 달콤한 여러 종류의 호떡으로 우정을 한껏 맛보았다. 이어진 선유도에서는 망주봉을 지나 대봉전망대에 올라 색다른 선유도의 전경을 느끼며 남악산 정상(156m)을 찍고서 몽돌해변을 거쳐 선유도 선착장의 ‘선유도밤바다’식당에 도착하여 키조개 삼합세트로 오늘의 안전한 산행과 시산제에 감사하는 맘으로 뒤풀이를 나눴다. 이어서 출발하여 도착한 군산의 ‘이성당’에서 빵세트를 미리 주문하여 회원들에게 나눔으로써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수고의 봉사에 애써준 장덕윤 회장과 김명국 총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뒤풀이 식대 전액을 찬조해 준 서학석 고문에게 또한 감사드린다.



4월 전체모임 ●●●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 장소 : 마포소재 서리원

꽃피는 상춘의 시간! 함께 얼굴 보고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여섯 시가 되자 딱찬 자리에 '오곡진상주'라는 단양산 막걸리로 청와대 만찬주로 쓰였다는 막걸리가 공수되어 식탁을 채웠다. 각종 진미의 요리들이 식탁 위에 깔리고 잔 부딪치는 소리와 젓가락의 움직임이 떠드는 소리에 묻혔다.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성호 사무총장이 일어나 사회를 보았다.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봄의 전령사인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봄의 기운을 아름답게 가슴에 품으며 이상현 회장은 "우리의 청춘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좌중을 한데로 모았다. 이어서 얼마 전 아들 결혼식이 있었던 정기영의 감사 인사와 5월에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황보평의 초대 인사도 함께했다. 다음은 소모임 회장들이 곧 있을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전체모임

진용주 KUCC회장은 4월에는 국내대학 최대박물관인 고대박물관과 캠퍼스 투어, 5월에는 성북동 길을 따라 길상사, 가구박물관, 심우장 등을 탐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종산 KUFC79회장은 4월에는 부부 봄꽃맞이 여행을, 6월에는 전체가족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훈 친구당회장은 매월의 정기 대회에 이어 6월에는 반기결산대회가 강원도에서 원정경기로 진행될 것을 알리며 신규회원 두 명을 추가로 초청하기도 했다. 장덕윤 산우회장은 곧 있을 중국 황산 해외 원정 트레킹을 알리며 5월 초에 있을 산토리 펜션에서의 1박2일 산행겸 트레킹에 대해 발표했다. 양희창 KUPGA회장은 매월의 월례 행사에 이어 5월 정기대회에 32명의 많은 인원의 참여로 침체기의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이어서 목계 장민기의 詩 한편을 청하여 듣고, 트럼프 덕에 쉬고 있는 여행안내자 신현길의 근황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질곡에서 오는 슬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다. 멋지고 좋은 동기들과 함께 자리하며 즐겁게 떠들고 잔을 나누는 귀한 시간은 아쉽게도 빨리 흘렀다.

KUCC 고대 박물관 관람 및 캠퍼스 투어 ●●●

- 일시 : 2026년 4월 17일(금)
- 장소 : 고려대 캠퍼스

국내 최고, 최대규모의 대학박물관인 고대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100주년기념 삼성관에 KUCC79회원 18명이 모였다. 학생 도슨트(미디어학부22)의 해설을 시작으로 관람이 시작됐다.



고대 박물관 관람중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1층에는 한국 최초의 자율주행차량(한만홍 교수팀, 1992년)이 안타깝게도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없이 멈춘 상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2층의 박물관에서는 국보230호 훈천시계와 훈천의가 우리를 맞았다. 조선 현종10년(1669년)에 송의영이 만든 것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관측기인 '훈천의'와 서양식 기계시계의 원리를 결합한 '훈천시계'는 서양개발과 1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독창적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고대박물관에만 있는 것이기에 귀중한 과학 유산이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반긴 것은 국보249호 '동궐도'였다. 조선후기 순조연간(1820~30)에 그려진 경북궁 동쪽의 창덕궁과 창경궁 전체를 세밀하게 그려낸 궁궐도로서 건축물과 조경, 배치, 계단, 지붕, 담장, 연못, 전각의 이름 등의 모습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일제강점기에 부수고 무너뜨린 궁궐의 복원할 때 핵심적인 복원자료로 쓰이고 한다. 아마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정선의 금강산도(金剛山圖)도 국보급으로 있으나 리움미술관 소장의 금강전도에 밀려 보물 1875호에 머무르고 있지만 진경산수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뽕죽한 1만 2천봉의 날카로운 봉우리들과 나무가 우거진 토산의 대비된 모습으로 실제 금강산의 모습을 우리 고유의 필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외에도 수선전도 목판본(조선시대 사대문 내의 서울 지도), 김홍도, 장승

업 등 유명한 조선시대 화가들의 고풍스러운 그림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기타 각종 도기와 태항아리, 불교 관련 유적들, 놀이기구, 의복, 문방사우들과 민영환, 유길준의 유물 등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관람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시시각각으로 드나들었다. 1층에 있는 고대 역사 박물관의 내부 수리 관계로 출입이 안되서 3층의 미술관에서 그림, 조각물 등을 관람했다. 1시간 30분 가량을 100주년기념 삼성관에서 보내고 이어서 변화한 캠퍼스를 돌며 우리가 졸업한 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간단한 약사를 오성호 사무총장이 설명하며 걸었다.

자연계 캠퍼스는 시간이 없어 투어를 못했지만, 본교 캠퍼스를 투어하면서 새 건물이든 헌 건물이든 관계없이 우리 고대의 모든 건물들에는 이리저리한 사연이 없는 건물이 없으며, 건축 후에도 교우들과 독지가들이 기부하여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뿐만 아니라 책꽂상에 이르기까지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후배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더욱 보람되고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또한 우리 경영79도 만년에 접어들며 5년 동안 재학생의 창업진흥과 해외유학생의 연구증진을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 회식 장소는 안암오거리에 있는 '두부촌'에서 정식과 막걸리를 나누며 보람되었던 하루의 일과를 정리했다. 기획하고 리딩하라 수고한 진용주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다음 달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고대 만세! 경영대 만세!"로 건배사를 제의한 이상현 총회장은 회식비용을 전액 찬조하며 KUCC모임을 격려해 주었다.

상반기 KUPGA79 골프대회 ●●●

- 일시 : 2026년 5월 17일(일)
- 장소 : 일동레이크CC

봄이 왔다 싶더니 벌써 성하의 계절로 들어선, 지난 일요일 오픈형 식으로 비회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첫 대회는 총 28명 7개 팀이 골프의 에티켓을 유지하며 열띤 경쟁으로 대회를 치렀다.

경연의 결과 메달리스트는 엄청난 기량 향상을 이룬 임영진이 8타(+9), 신페리오 방식 우승은 71.6을 기록한 김성태가, 니어리스트는 100타 중 13번 홀에서 회심의 한 타를 3m에 붙인 한상린이, 세월을 무색하게 270yrds를 날린 김정관이 롱기스트를 차지했다. 과거를 이룬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참가상품으로 지난 5년간 상반기 대회마다 타이틀리스트 고대 경영 로고 볼을 제공해 준 정준돌, 세련된 세면 파우치백을 선사한 허만길, 오대살 한 포씩 나눌 수 있게 반포를 지원해 준 김성태, 김진호, 노천 테라스 직원 봉사료를 초등고 매치 게임의 패배의 아픔도 뒤로하고 쾌적한 서동린 등 모두에게 고맙다. 천당 아래 999당이라 칭하는 노천 테라스에서 19번 홀의 즐거움을 미식과 주향 그리고 멀리 보이는 노을이 물든 한복정맥의 고산 능선을 보며 벗들과 화담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신동익에게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KUPGA79 성원하기 위해 참석한 이상현 회장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전달해준 발전기금은 모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어제 만찬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기쁨과 우정의 따스함 속에 웃음이 깃들기를 바라며 서로 서로에게 꽃과 벌처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우정을 유지하기 바란다.



상반기 KUPGA79 골프대회

고경79산우회 5월 오대산 산행 ●●●

-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 장소 : 오대산 소금강

고경79산우회 17명이 오대산 소금강에 갔다. 약 14km가 넘는 거리라서 8명은 소금강 주차장에서 구룡폭포의 트레킹 코스를 택하고 9명은 진고개 휴게소(960m)에서 노인봉, 그리고 소금강 주차장



오대산에서



까지 걸었다. 비단길 같은 노인봉까지의 산길도 힘들게 계단과 가파른 오르막길을 번갈아 있기에 쉽게 오르기는 힘들었다. 노인봉 (1,338m)에서 인증샷을 찍고 바로 아래 널찍한 식탁 바위에 앉아서 간단한 점심으로 막걸리와 흥어회, 문어숙회와 과일 등을 나누며 적당히 빈 배를 채웠다. 드디어 노인봉 아래로 10여km의 돌길과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숲길 사이로 해발 1,330m에서 해발 400m 까지 아름다운 계곡과 임반 등으로 눈을 시원하게 달래며 지루하고 기나긴 산길을 하산했다. 한참 내려와 처음 만나는 낙영폭포에서 잠시 얼굴에 찬물을 뿌리고 과일을 나눠 먹어서 또 지루한 산길을 내려왔다. 광폭포, 삼폭포, 백운대, 촛대바위, 만물상 등을 거쳐 구룡폭포에 도착해 인증샷을 남기고 또 하산길을 재촉했다. 이어지는 세심폭포, 청심대폭포, 식당암 등을 거치며 금강사에 들러 잠시 숨을 돌리며 맑은 샘물 한잔으로 마른 목을 적시며 연화담과 십자소를 통과해 주차장에 도착했다. 트레킹 팀이 반가이 맞으며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입에 물게 해줬다. 버스로 주문진의 회센터까지 이동해 모듬회와 생선구이, 매운탕 등으로 배부르게 뒤푼이를 가졌다. 안타깝게도 안희준의 촬영용 드론이 바다에 추락해 이를 찾으러 한 동기가 바닷물을 헤엄쳐 따개비에 무릎을 스쳐가며 드론이 떨어진 위치의 바위를 왕복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지만 결국 못찾았다. 좀 늦게 출발한 귀경길은 생각보다 빨리 서울에 도착해 서둘러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수고하고 봉사해 준 산우회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영79장학위원회 소식 ●●●

- 일시 : 2026년 6월 5일(금)
- 장소 : LG-POSCO 경영관 구두회 강의실

경영대학 주최하고 KUBS Startup Station에서 주관하는 2026 Summer Season 창업경진대회인 STARTUP EXPRESS가 LG-POSCO 경영관 구두회 강의실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일진글로벌, 동화그룹, 경영79동기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 79동기회에서는 방용원 감사와 오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스마트연구원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 25분부터 시작된 경진대회에서는 가치매치, COGNITO, WITHOUT, 나드리, 지느러미, 트리니티 등 12개의 팀이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9개 팀이 입주사로 선정되어 경영대학 스마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무료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오후 5시 20분까지 심사를 거쳐 고경79 포상 3팀, 동화그룹 포상 1팀, 일진글로벌 포상 1팀을 선발해 포상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영79동기회상으로는 최정호를 대신해 오성호 사무총장이 가치매치, 지느러미, 트리니티 팀에게 200만 원의 부상과 함께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주로 시를 이용한 서비스나 플랫폼 위주의 발표가 많았고, 비상 이동을 위해 6족 보행 로봇을 기획한 팀이 특이했다. 분리수거 창업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경진대회 선배가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줬다. 황준호 스마트연구원장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상반기 창업경진대회의 막을 내렸다. 후배들의 참신하고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기원한다.



'가치매치'팀에게 경영79동기회상 수여

80 회장 유광후 / 사무총장 하만우

전체 모임 ●●●

통상 5월에 하던 봄 야유회가 6월로 연기되면서 전체 모임은 없었지만 6월 20일(토)에 호산회와 공동으로 괴산 산막이옛길을 갈 예정으로 많은 동기들의 참석 하에 즐거운 시간하기를 기대해 본다.

3월 호산회 ●●●

· 일시 : 2026년 3월 21일(토)

· 장소 : 북한산 원효봉

북한산은 봉우리도 많고 오르는 코스도 다양한 명산이다. 원효봉은 처음이고 아직 북한산에서 못 가본 봉우리도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못 하는 회원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11명이 참석했다.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만나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이동해서 산을 올랐다. 산행 초기부터 코스의 경사가 느껴졌다. 원효암을 지나 중포를 하고, 원효대를 거쳐 원효봉에 올라 단체 및 개인 사진을 여럿 찍었다. 경사가 가파랐던 것만큼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참 좋았다. 하산길은 돌들을 징검다리 삼아 밟으며 힘들지 않게 내려왔다. 작년부터 계속 활활 타는 주식시장, 이란과의 전쟁, 최근 딸이 서울에 집을 샀다고 자랑하는 이창우의 이야기 등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왔다. '병천청년순대'에서 뒤풀이했다. 임규화가 늦게 참석하여 주당들 사이에서 막걸리, 소주, 맥주 등으로 무공을 펼친다. 깜짝 손님으로 '고려여자대학교' 졸업생 4명이 격려차 방문했다. 서 정 교문을 또 다른 산악회 시산제 뒤풀이에 모시고 가려는 방문이었는데 음양이 어울리니 생각이 돌았다. 스타벅스에 빈자리가 없어 백다방으로 가서 차 한잔하고 다음 달을 기약하며 귀갓길에 올랐다. 좋은 날씨에 함께 해준 동기들에게 고마웠고 산행을 리드해준 이현우 대장과 세 고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체유심조라는 큰 가르침을 주신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원효봉에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아쉬움을 남기며... 호산회여, 영원하라!!



원효봉에서

4월 호산회 ●●●

· 일시 : 2026년 4월 12일(일)

· 장소 : 운길산

경의중앙선 열차를 타고 운길산역에서 만나 산행하기로 했다. 2~3일간 비가 와서 아침 공기는 맑았으나 다소 흐렸다. 동기들만 20명, 초대 손님까지 30명의 많은 인원이 움직였다.



운길산 수종사 앞에서

운길산역에 도착하니 권현준이 배고픈 동기들을 위해 떡을 나눠줬다.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안 좋아 산행은 못하지만 동기 보고 싶은 마음에 차에 떡을 싣고 왔다. 최근 정치적 도전을 했던 유광후, 1년 이상 해외 근무하다가 최근 귀국한 박상협도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 보려고 와서 일행과 합류했다. 일부 무릎이 안 좋은 동기들이 권현준의 차를 타고 수종사로 떠나고 나머지는 무리를 지어 중포 장소인 수종사로 향했다. 그런데 오르는 경사가 장난이 아니다. 북한산처럼 바위산도 아니고 흙을 밟고 가는데도 계속되는 경사로를 오르면 종아리가 땡땡해졌다.

수종사 입구 앞 휴식 공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초대 손님들이 탁자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밥과 각종 나물, 반찬들을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에 버무려 30명이 먹을 비빔밥을 만들었다. 초대 손님들에게 선택받은 이창우, 정규언, 최윤식이 비닐장갑을 끼고 비빔밥 버무리는데 함께 했다. 비빔밥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엄마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아이와 같은 심정일까?

비빔밥 중포를 마치고 수종사의 은행나무 고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후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만 운길산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가파른 경사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도 묵묵히 터벅터벅 힘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오르다 보니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운길산 정상석을 배경으로 단체사진과 개인 사진을 찍고 흐릿하게 보이는 아랫동네를 감상하다가 일행들이 기다리는 뒤풀이 식당을 향해 하산했다. 뒤풀이 식당에 도착하니 먼저 온 동기들이 벌써 상당량의 알코올을 해치우며 본진을 위해 주문을 한 상태였다. 장어에 미나리전을



반찬 삼아 '진달래'(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를 외치며 막걸리 한잔 목을 축이니 하루의 피로가 다 가시고 무릎이 아픈지도 몰랐다. 이렇게 건강하게 여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냐. 짧은 뒤풀이가 아쉬워 일단 구리의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 산행을 위해 수고한 이현우 산악대장과 세 고문님,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박상협 고문, 자리를 빛내준 동기회장 유광후와 전 동기회장 권현준, 그리고 동기회의 온갖 굵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하만우 사무총장도 함께해 줘서 감사하고, 돈 버느라 그동안 고생한 송백영, 채교설도 모처럼 나와줘서 기쁘고, 참석한 모든 동기들, 함께해 줘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호산회와 함께 합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5월 호산회 ●●●

- 일시 : 2026년 5월 10일(일)
- 장소 : 불암산

계절의 여왕 5월의 호산회 산행지는 불암산이다. 산 전체가 큰 바위로 되어있고 먼 곳에서 보면 마치 샷갓을 쓴 부처님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산 이름이란다. 경사가 심하고 태릉선수촌에 붙어있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밤낮으로 체력단련을 위해 오르내렸다는 그 산이다.



불암산 정상에서

경수사 입구의 공터에서 최윤식의 리드로 체조로 몸을 풀었다. 경사가 심해서 하체를 잘 풀어야 한다고 겁을 줬다. 불암산 초입으로 들어가니 역시나 경사가 느껴졌다. 바위와 나무뿌리와 약간의 흙이 뒤섞여 있었다. 산행은 처음이 힘든 것 같다. 일단 오르막이어서 호흡도 거칠어지고 다리에 가해지는 긴장감이 계속 밀려왔기 때문이었을까?

중간에 휴식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올라온다. 누군가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강원대학교 등산부라고 한다. 1학년! 참 좋을 때다. 춘천 출신인 신병철이 반갑다고 막걸리 1병을 선물로 주니 옆에 있던 경섭이는 생오이 봉지를 통째로 안주하라며 준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농담에 반응해 주는 것이 착하고 기특하다. 이 학생들에게 단체 사진 촬영도 부탁해서 찍어줬다.

정상 직전 바위 한켠에서 증풍을 했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 그리고 빵과 과자, 훈이가 특제해 온 커피 등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맛있게 먹고 불암산 정상으로 갔다. 호산회 현수막을 펼치고 단체사진을 찍으려고 앞에 있는 산우에게 부탁하니 고대 87학번들이란다. 어이쿠 반갑소. 정상 부근에 등산객이 많아서 서둘러 사진 몇 장 찍고 내려오려는데 몇몇 동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87학번 후배들 중 여교우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 엄청 예쁜 후배가 있어서 선후배 간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하산길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경사도 있고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구간이 여럿 있었는데, 등산화에 바위가 딱딱 달라붙어서 쇠 파이프 난간을 붙잡지 않고 마찰력만으로 내려오는 재미도 있었다. 선두와 후미가 늘어져서 상계역 이정표를 보며 내려가는데 선두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인데 영어가 들려온다. 산행 온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미군 캡틴 3명(남자, 여자2)과 호산회 카츄샤 예비역 병장 서너 명이 군대 얘기를 영어로 하고 있다. 참 글로벌한 세상이다.

상계역 근처 춘천달갈비집에서 뒤풀이했다. 유광후도 곧 도착하여 동기획 6월 आयु회를 호산회와 함께 하기로 했고, 공식이던 동기획 부회장 자리도 서 정 고문을 추대하기로 했다. 동기획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는 하만우 사무총장의 간곡한 절구가 먹힌 것 같다. 어려운 숙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보답이었던지 1차 식사비를 유광후 회장이 흔쾌히 부담해 주었고 이어지는 2차 팔빙수를 서 정 고문이 자진 부담해 주었다. 고맙소, 잘 먹었소.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동기들 다음에는 꼭 참석해 주기 바라며 오랜만에 참석한 병철 동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게 기가 된 것 같아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차, 2차 경비를 부담해 준 유광후 동기회장과 서 정 부회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아우디'라는 건배사를 외친다. 아그들아, 우리의 우정은 디질 때까지여. 호산회여, 영원하라!!

4월 골프회 ●●●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 장소 : 마이다스밸리 청평

단체 사진을 남기지 않았지만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은 심성수 신임 회장의 책임으로 진행된 첫 행사였다. 김현우 前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오늘의 시상은 76개를 쳐서 메달리스트가 된 신창윤 외에는 성적보다 공로 위주로 이루어졌다. 김준경 이 회원 명예상, 김성훈이 회원 배려상, 귀국 직후 참석한 박상협이 회원 사랑상을 받았다.



골프회 4월 모임

6월 골프회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 장소 : 마이다스밸리 청평

따로 후기는 없다. 그러나 멀리 캐나다에서 내한 참석해 준 동기, 오랜만에 옛 실력을 보여준 동기, 일본 출장을 연기하면서 참석한 동기, 허리 아파도 약 먹고 참석해 준 동기 등등의 도움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상연이 75타로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이 상교가 240m로 롱기스트상을 받았다. 아직 젊다.



골프회 6월 모임

일수회 ●●●

일수회는 13년째 운영되는 동기회 소모임이다. 핵심 참석자들은 일부 바뀌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4일에는 '무교 주가 제일제면소'에서 6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4월 1일은 '맷돌로만 서울시청점'에서 8명이 모였으며, 5월 6일에는 '손가명 가'에 8명이 모였다. 앞으로 일수회도 사진을 남기자고 해야 할 것 같다.

82 회장 최성용 / 총무 김태진

우리는 골프를 치거나 산을 탄다 - 경영 82학번의 마츠야마 원정기 ●●●

녹음이 질어가는 눈부신 봄날, 우리 고대 경영 82학번 동기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일본 마츠야마로 특별한 여정을 다녀왔다. '우리는 골프를 치거나 산을 탄다!'라는 활기찬 슬로건을 내 걸고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마츠야마 시내의 고즈넉한 풍경을 둘러보며 가볍게 여정을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마츠야마 원정대

둘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골프조와 섬 트레킹조로 나뉘어 일정을 진행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몸은 조금 고단하고 고생도 했지만, 빗속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격려하며 끈끈한 고대인의 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날은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전날의 궂은 날씨가 무색할 만큼 쾌청했다. 맑은 공기 속에서 골프조는 시원한 굿샷을 날렸고, 산행조 역시 푸른 자연을 만끽하며 마츠야마의 아름다운 산세를 멋지게 완주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그야말로 완벽한 봄날이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골프조는 유쾌한 라운딩을 즐겼고, 트레킹조는 마츠야마성의 역사 깊은 성곽을 관람하며 이번 원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3박4일 동안 서로 다른 코스에서 맘을 흘렸지만, 저녁이면 함께 모여 호연지기를 논하던 시간은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다.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함께해 준 82학번 동기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들의 당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경 82학번 파이팅!

98 회장 김경태

교우의 밤 뒤풀이 ●●●

3월 31일(화) 충정로 파티룸에서 2025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 주관을 했던 98학번이 모임을 가졌다. 모금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학창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 근황을 이야기하며 웃음 꽃을 피웠다. 98학번의 지속적인 모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기로 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채 다음을 기약했다.



교우의 밤 뒤풀이

E반 골프모임 개최 ●●●

98학번 E반 동기모임은 2025년에 처음으로 결성되어 '경영대학 교우의 밤' 장학금 기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뒤로도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경영학과 98학번 E반을 주축으로 이스트밸리CC에서 4팀(게스트 2명: A, B반 동기) 골프 라운딩 모임을 가졌다. 날씨도 너무 좋고 훌륭한 명문 구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반 골프모임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나는 오늘도 한 줄의 삶을 조각한다.



서명 나는 오늘도 한 줄의 삶을 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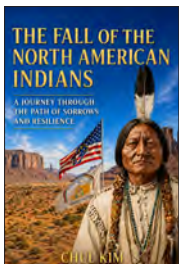
저자 황인강(상61)

출판사 에세이문예

출판일 2025.11.24.

〈봄의 벽에 서다〉에 이어 황인강 교수가 3년 만에 낸 다섯 번째 수필집 〈나는 오늘도 한 줄의 삶을 조각한다〉. 황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내면적 사유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을 고찰하고 사건을 다각화하여 삶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다. 단순히 성공담이 아닌 삶 속에서 부딪히는 좌절과 한계를 황 교수의 강인한 성품과 자기 단련, 내면의 끈기, 성실한 자세로 극복한 철학적 성찰과 실천적 삶의 교훈을 담았다.

The Fall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컨텐츠명 The Fall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인디언의 길)

저자 김철(무역68)

2015년도에 〈인디언의 길(노스아메리카 인디언의 500년 수난사)〉를 펴낸 김철 교수가 〈The Fall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라는 제목으로 영문판을 냈다. 김 교수는 산업은행 재직 당시, 미국에서 근무 중 인디언들의 삶을 가까이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인디언들의 역사와 문화, 백인 이주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은퇴 후 500년 수난사를 책으로 내고 2015년 파이낸셜뉴스에 연재했다. 김 교수는 '미국 민중사'를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한 하워드 진 전 보스턴대 교수처럼 인디언들의 아픔이 잘 전해지기 위해 저서를 내기보다 유튜브와 블로그에 디지털 콘텐츠를 게재하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nshine49)의 '인디언 역사' 코너에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코없는 코끼리 K

“혁신은 경직된 회의실서 안 나온다”...고려대 경영대의 도전

“혁신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생과 기업, 예술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김언수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지난 5월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 'KUBS Trading Zone Opening & Demo Day'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경영대는 이날 '3C 트레이딩 존'을 중심으로 기업과 학생, 예술가가 함께 미래 산업의 문제를 논의하는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학교로 들어오는 산학협력 플랫폼 상시 운영

3C 트레이딩 존은 호기심(Curiosity), 협업(Collaboration), 기여(Contribution)를 뜻하는 '3C'를 바탕으로 학생과 기업, 스타트업, 예술가가 자유롭게 만나 문제를 논의하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단순한 휴게 공간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기업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과 실제 산업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 공간은 고려대 경영대가 추진하는 'KUBS 2030' 전략의 핵심 축인 '3C 4Tech' 비전을 구현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고려대 경영대학이 내세운 4Tech는 인공지능(AI), AI 반도체, AI 로봇틱스, AI 에너지다. 3C가 공간 운영의 철학이라면, 4Tech는 학생들을 키울 기술 영역이다. 경영대는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인재뿐 아니라, 엔지니어와 소통하고 기술 기반 조직을 이끌 수 있는 '테크 리터러시'를 갖춘 경영자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 학장은 “기존 경영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봤다”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살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실제 리스크를 의제로 던지고, 학생은 고정관념 없는 시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공간이 트레이딩 존”이라며 “기업은 미래 인재를 먼저 만나고, 학생은 교실 밖 실천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경영대는 3C 트레이딩 존을 학생들이 기업 과제를 분석하고 기업 관계자와 토론하며, 예술적 감각까지 접목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간은 다과와 음료가 제공되는 '3C 카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고 지울 수 있는 투명 화이트보드, 금요일 오후마다 문화 콘텐츠가 열리는 '오픈 시어터', 조형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스킵 프처', 아트 멀티미디어 연습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트레이딩존 한가운데에는 엄정순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코없는 코끼리K'도 전시됐다. 고려대 관계자는 “엄 작가는 기존 관념을 해체하는 예술 언어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고려대 경영대는 예술 작품을 단순 장식품이 아니라 경영 교육 공간에 다른 시각을 불어넣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대학은 앞서 2022년, 경영관 앞에 이우환 작가의 작품 '관계항-장소성'을 설치했다.

AI·반도체·로봇틱스 기업 참여...학생들과 실전 토론

이날 데모데이에는 로봇틱스, AI 핀테크, 반도체, 뷰티·소비재 분야 기업 관계자와 학생,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발표와 학생 토론 그리고 음악과 공연,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트레이딩 존 한쪽에 마련된 연습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쳤고, 참석자들은 다과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데모데이에는 4개 분야 기업이 참여해 각 산업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학생들과 논의했다. 로봇틱스 분야에서는 물류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경영00) 대표가, AI 핀테크 분야에서는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의 이혜민 대표가 참여했다. 뷰티·소비재 분야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박연진 팀장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SK실트론 박건수 프로그가 학생들과 토론했다. 각 팀은 경영대학뿐 아니라 공과대학, 문과대학, 디자인조형학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고려대 경영대는 2030년까지 QS 세계 랭킹 30위권, 2040년까지 세계 랭킹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학장은 “학생을 교육해 기업으로 내보내는 기존 모델을 넘어, 기업이 학교로 와서 인재를 만나고 데려가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며 “트레이딩 존은 고려대 경영대가 구현하려는 체험형 학습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5월 9일 한국경제신문 발취



고려대 경영대, 세계 최고 권위 'EQUIS 5년 재인증' 획득... 국내 유일 5회 연속 인증 쾌거

경영대학(김언수 학장)이 세계 경영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인증기관인 유럽경영대학협회(EFMD)로부터 'EQUIS(EFMD Quality Improvement System)' 5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EQUIS 5회 연속 인증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EQUIS는 전 세계 경영대학의 전략, 교육과정, 연구, 국제화, 산학협력, 윤리·책임·지속가능성(ER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로, 세계 최상위권 경영대학에만 부여된다. 인증 결과는 5년 인증, 3년 인증, 인증 보류 및 박탈로 구분되며, 고려대 경영대학은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2007년 국내 최초로 EQUIS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0년, 2015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EFMD 실사단은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고려대 경영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EQUIS의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속적인 교육 혁신 △경영과 기술의 융합 △강력한 산학협력 △우수한 연구 역량 △활발한 국제화 △탄탄한 네트워크와 공동체 문화 등이 꼽혔다.

김언수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번 5년 재인증은 교육, 연구, 국제화, 산학협력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Business for Society(사회를 위한 경영)'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경영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적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경영대학은 2005년 국내 최초로 전 교육과정에 대해 AACSB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07년 EQUIS 인증까지 취득, 세계 양대 경영교육 인증을 모두 유지하며 국내 글로벌 경영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2026년 5월 28일자 경영대 신문

핀테크 기업 두나무 오경석 대표 모교에서 특강 '디지털 자산과 미래 금융' 주제로 강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이사 오경석, 경영96)와 함께 5월 13일(수) 오후 5시 교내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자산 특강 '업클래스(UP Class)'를 개최했다.

'업클래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와 업비트 현직자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캠퍼스 특강이다. 이번 강연에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까지 약 300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오경석 대표의 '디지털 자산과 미래 금융 인사이트'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오경석 대표는 과거에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에만 활용됐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한 송금, 결제, AI 에이전트 등 블록체

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전했다. 이미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한국 시장이 K금융, K핀테크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블록체인, 핀테크, AI 등 미래 금융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2부에서는 거래소 주문·체결 엔진 개발과 자금세탁방지를 주제로 모교 출신 실무 임직원들(개발, 비개발 직군)의 직무 경험을 전달하는 커리어 토크를 진행했다.

지난해 두나무 대표이사에 취임한 오경석 대표는 공인회계사, 판사, 변호사를 두루 거친 금융 법률 전문가이며 10여년간 회사를 이끈 전문 경영인이다. Q&A 시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했으며 학생들의 질문 중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오 대표는 인생에 안정은 없으며 도전과 성장에 기준으로 두라고 조언했다.

LG-POSCO 경영관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BEST BRAND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PRODUCT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